

『素問·上古天真論』의 “七”, “八”數에 대한 易學的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學研究所 特別研究員 丁彰炫

內容摘要

關於『素問·上古天真論』中“七”, “八”數的易學的考察

本論文用易學的方法對『素問·上古天真論』中“七”, “八”數進行考察, 得出了以下結論:

1. 筆者認為“七”和“八”數與易學筮法中的六、七、八、九即四象數有密切的關係。根據陰陽進退理論, 七爲少陽, 九爲老陽, 八爲少陰, 六爲老陰。
2. 易學重視變化故用九六之數代表陽爻和陰爻。但, 就人體生理方面上, 應該需要固定不變的常數, 從人體生長的實際情況看, 七數和八數比六數和九數更符合男女生長週期。因此, 『內經』用七數和八數爲男女生長發育的基數。
3. 本來少陽由陰產生的, 少陰由陽產生的, 陰代表女子, 陽代表男子。從而男子當合少陰數八, 女子當合少陽數七。

關鍵詞(Key words): 七, 八, 少陰, 少陽

1. 導論

『素問·上古天真論』은 人體 生長發育의 週期를 언급할 때, 女子는 “七”을 기준수로 삼고, 男子는 “八”을 기준수로 삼아서, “여자는 일곱 살에 腎氣가 차서 이갈이를 하며 머리털이 자라고, 二七의 열네 살에는 天癸가 이르러 任脈이 소통되어 太衝脈이 차게 되어 月經이 때에 맞추어 내리니, 故로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三七의 스물한 살에는 腎氣가 고루 갖추어 균일하게 되니 故로 사랑니가 나 자람이 다하고, 四七의 스물여덟 살에는 筋骨이 건설해지며 머리털이 자람이 다하니 身體가 成熟하여 굳세집니다. 五七의 서른다섯 살에는 陽明脈이 쇠약해지니 얼굴이 초췌해지기 시작하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六七의 마흔두 살에는 三陽脈이 위에서 쇠약해져 얼굴이 다 초췌해지면서 머리털이 희어지기 시작합니다. 七七의 마흔아홉 살에는 任脈이 비게 되어 太衝脈이 쇠약해지며 적어지고 天癸가 다하여 地道가 통하지 않으니, 故로 形體가 어그러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丈夫는 여덟 살에는 腎氣가 충실해져 머리털이 자라며 이갈이를 하고, 二八의 열여섯 살에는 腎氣가 차서 天癸가 이르니 精氣가 넘쳐 쏟을 수 있게 되며 陰陽이 조화로워지니, 故로 능히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三八의 스물네 살에는 腎氣가 고루 갖추어 均一해져 筋骨이 튼튼하고 탄탄해지니 故로 사랑니가 나 자람이 다하고, 四八의 서른두 살에는 筋骨이 융성해져 肌肉이 풍부하여 건강해 집니다. 五八의 마흔 살에는 腎氣가 쇠약해져 머리카락이 빠지며 이빨이 마르고, 六八의 마흔여덟 살에는 陽氣가 위에서 쇠약해져 다하니 얼굴이 초췌해지며 머리카락과 수염이 절반쯤 희어집니다. 七八의 쉰여섯 살에는 肝氣가 쇠약해져 筋이 능히 움직이지 못하고 天癸가 다하여 精이 적어지고

腎藏이 쇠약해지며, 八八의 예순네 살에는 치아와 머리카락이 빠진다(女子七歲, 腎氣盛, 齒更髮長;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三七, 腎氣平均, 故真牙生而長極; 四七, 筋骨堅, 髮長極, 身體盛壯; 五七, 陽明脈衰, 面始焦, 髮始墜; 六七, 三陽脈衰於上, 面皆焦, 髮始白; 七七, 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 丈夫八歲, 腎氣實, 髮長齒更; 二八, 腎氣盛, 天癸至, 精氣溢寫, 陰陽和, 故能有子; 三八, 腎氣平均, 筋骨勁強, 故真牙生而長極; 四八, 筋骨隆盛, 肌肉滿壯; 五八, 腎氣衰, 髮墜齒槁; 六八, 陽氣衰竭於上, 面焦, 髮鬢頰白; 七八, 肝氣衰, 筋不能動, 天癸竭, 精少, 腎藏衰, 形體皆極; 八八, 則齒髮去)"라고 하였다. 이는 고대인이 오랜 기간의 관찰을 통해 얻은 결과와 易學의 象數思維가 결합하여 도출된 것으로, 실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참고의 가치가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의문이 존재한다. 첫째는 왜 하필 "七"과 "八"을 使用하였는가? 둘째는 왜 男子는 "八"에 합하고 女子는 "七"에 합하는가?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數理上的 陰陽進退原理의 四象分化原理 두가지 이론에 근거하여 考察해보고자 한다.

2. "七", "八"數의 來源

筆者는 "七"과 "八"數가 易學筮法中の 六, 七, 八, 九 즉 四象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筮法上, 하나의 爻는 三變을 통해 얻어지는데, 이때 얻을 수 있는 數가 六, 七, 八, 九 四象數이다. 이를 陰陽進退理論에 따라 四象으로 구분하여 보면, 七은 少陽, 九는 老陽, 八은 少陰, 六은 老陰이 된다.

生成數로써 설명해보면, 易理에 一三四五까지를 生數라하고, 六七八九十을 成數라한다. 生數라 함은 초목의 種子가 發芽하기 까지와 胎兒가 出産하기까지의 단계를 말하고, 이 단계는 發育만 있고 收藏老死등 變化가 없으므로 生數에는 變化가 없다. 成數는 초목의 根莖枝葉등이 발현한 後나, 사람이 출생한 後와 같으므로 거기에는 榮枯壯老등의 變化가 있는 것이다. 陽은 生長, 盛大등 作用이 있고, 陰은 收斂, 縮小등 作用이 있는지라, 成數 六七八九十 중에서 七과 九는 陽에 속하므로 生長작용이 있고, 六과 八과 十은 陰에 속하므로 收縮作用이 있다. 七은 陽이 生長하는 시초이므로 少陽이 되고, 九는 陽의 生長이 끝나는 곳이므로 老陽이 된다. 老陽은 그 生長이 極에 到達하고 事物은 極에 到達하면 變하는지라, 陽이 九에 이르면 老하여 반드시 收縮作用으로 轉化하고, 九가 收縮하면 十이 되는 것이 아니라 下降하여 八이 된다. 그러므로 八은 陰의 收斂作用의 始初로서 少陰이 되고, 少陰이 더욱 收縮하면 六이 되므로 六을 老陰이라한다. 陰이 六에 이르러 老하면 반드시 變하는데, 陰이 변하는 때는 그 내부에 陽을 胎生하니, 그러므로 老陰이 生産한 胎兒는 반드시 少陽인 七이 된다.¹⁾

3. "七", "八"數를 쓰는 이유

자, 그렇다면 왜 《素問》에서 "九", "六"數를 쓰지 하필이면 "七", "八"數를 썼을까? 이에 대해서는 明確한 해석이 없고, 단지 최근에 李今庸이 하나의 見解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여자는 陰에 속하는데 그 유년의 기운은 少陰의 기운이다. 그러므로 少陽數와 만나게 하고 '七'을 기준으로 삼는다. 男子는 陽에 속하는데 그 幼年의 기운은 少陽의 기운이다. 그러므로 少陰數와 배합하고 '八'을

1) 作者未詳, 易學原論-生存法則과 政治理論-, 1954年 12月, 228~229

기준으로 삼는다.(女子屬陰, 其幼年爲少陰之氣, 故以少陽數遇之, 而以‘七’爲准; 男子屬陽, 其幼年爲少陽之氣, 故以少陰數合之, 而以‘八’爲准.)²⁾라고 하였다. 그의 의견에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素問·上古天真論》의 生長節律은 幼年期에 국한되지 않고 生命의 전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주장은 전면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筆者의 見解로는, 이 문제는 고대인의 경험 및 “數”에 대한 易學的 思維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易緯·乾鑿度》에 이르기를 “陽은 움직이면 나아가고 陰은 움직이면 물러난다. 그러므로 陽은 七을, 陰은 八을 象으로 삼는다. 易이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하는데 합하면 十五가 되는 것을 ‘道’라고 한다. 陽의 變化는 七에서 九로 가고 陰의 變化는 八에서 六으로 가는데 역시 十五에 합한다. 즉 象과 變의 數가 한결같다(陽動而進, 陰動而退, 故陽以七, 陰以八爲象. 易一陰一陽, 合而爲十五之謂道. 陽變七之九, 陰變八之六, 亦合于十五, 則象變之數若一也)”라고 하였다. “象”에 대해서는 鄭玄이 注釋하기를 “爻之不變動者”라고 하였는데, 筮法中的 “七”, “八”數와 “少陰”, “少陽”의 象은 곧 변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것을 “象”이라고 칭하고, “六”, “九”數와 “老陰”, “老陽”의 象이 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變”이라 칭하였음을 말한다. 이는 爻象의 變化와 陰陽數의 關係를 설명한 것이다. 陽數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九에서 멈추고, 陰數는 뒤로 물러나는데 六에 그친다. 七, 八數는 곧 변하지 않는 爻고, 六, 九數는 변할 수 있는 爻이며, 易은 變易을 중시하므로 《周易》에는 九, 六數로써 陰陽二爻를 대표한 것이다. 이것은 爻를 九, 六이라고 稱하게 된 原因을 밝힌 것이다.³⁾

朱子 역시 이르기를 “늙은 것은 다하여 변하고, 젊은 것은 그 常을 지킨다(老極而變, 少守其常)”(《周易本義·五贊·明筮》), “대개 七은 少陽이고 九는 老陽이며, 六은 老陰이고 八은 少陰이다. 늙은 것은 변하고 젊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 무릇 占에서 九를 쓰고 六을 쓰는 것을 그 變爻를 써서 점을 치기 때문이다(蓋七爲少陽, 九爲老陽, 六爲老陰, 八爲少陰, 老變而少不變, 凡占用九用六者用其變爻占也).”(《周易本義·乾卦·或問》)라고 하였다. 이로 볼 때, “七”, “八”數는 少陽數와 少陰數로서 不變의 常數며, “九”, “六”數는 老陽과 老陰數로써 可變의 數다. 易學은 變化를 중시하기 때문에 九, 六之數로 陽爻와 陰爻를 대표한 것이다. 그러나 人體生理方面에 있어서는, 당연히 고정 불변의 常數가 필요하며, 또 人體生長의 실제 情狀으로 볼 때 七數와 八數가 六數와 九數에 비하여 男女의 生長週期에 더욱 부합한다. 이러한 연유로 《內經》에는 七數와 八數를 男女生長發育의 기준수로 삼은 것이다.

4. 男子가 “八”, 女子가 “七”에 합하는 이유

그러면 왜 男子는 八數를 기준수로 삼고, 女子는 七數를 기준수로 삼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 歷代 여러 注家들이 大部分 “陰陽氣和”, “陰陽作合”等 陰陽相合論理으로 해석 하였다. 예컨대, 王冰은 “여자는 少陰의 기운이므로 少陽數와 짝이 되니, 陰陽의 氣가 화합하면 곧 그 形體를 生成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男子는 少陽의 氣이므로 少陰數로 합한다(女子爲少陰之氣, 故以少陽數偶之, 明陰陽氣和, 乃能生成其形體, ……男子爲少陽之氣, 故以少陰數合之).”라고 하였고, 張介賓은 “살피건대, 男子는 陽에 속하므로 마땅히 陽數에 합하고, 女子는 陰에 속하므로 마땅히 陰數에 합한다. 그런데 지금 女子는 도리어 七에 합하고 男子는 도리어 八에 합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대개 天地萬物의 道는 오직 陰陽二氣일 뿐이다. 陰陽은 합을 이루어 원래부터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

2) 李今庸. 讀古醫書隨筆. 第一版. 人民衛生出版社. 1984 : 7

3) 朱伯崑. 易學哲學史 上冊. 北京大學出版社. 1989 : 163

리므로 陽 속에는 반드시 陰이 있고 陰 속에는 陽이 있다. 儒家는 이를 互根이라하고 道家는 이를 顛倒라고 불렀는데, 모두가 이 이치를 펴서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女子는 밖은 陰體이지만 안으로는 陽數에 합하고, 男子는 밖은 陽體이지만 안으로는 陰數에 합한다(按男子屬陽, 當合陽數; 女子屬陰, 當合陰數, 而今女反合七, 男反合八, 何也? 蓋天地萬物之道, 惟陰陽二氣而已. 陰陽作合, 原不相離, 所以陽中必有陰, 陰中必有陽, 儒家謂之互根, 道家謂之顛倒, 皆所以發明此理也. ……故女子外爲陰體, 而內合陽數, 男子外爲陽體, 而內合陰數)."

太極			
陰--(女)		陽--(男)	
陰中陰==	陰中陽==	陽中陰==	陽中陽==
太陰(老陰)	少陽	少陰	太陽(老陽)
六	七	八	九

四象數圖

筆者는 이 문제에 대해 四象이 太極으로 부터 분화되어 나온 과정을 가지고 해석해보고자 한다. 四象數圖를 보면, 본래 “少陽”은 陰에서 生成된 것이고, “少陰”은 陽에서 生成된 것이며, 陰은 女子를 대표하고, 陽은 男子를 대표한다. 따라서 男子는 마땅히 少陰數인 “八”과 상합하고 女子는 少陽數인 “七” 상합한다.

參考文獻

1. 作者未詳, 易學原論-生存法則과 政治理論-, 1954年 12月, 228~229
2. 李今庸, 讀古醫書隨筆. 第一版. 人民衛生出版社. 1984 : 7
3. 朱伯崑, 易學哲學史 上冊. 北京大學出版社. 1989 : 163